

치유정원의 식재 설계 기법 연구

윤상희 · 전승훈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오늘날 'Healing'과 'Well-being'이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에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등 약물과 수술 없이도 정신 건강과 운동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원예치료 활동을 찾게 되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치유정원에서의 원예치료는 효과적이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정원은 안식처이자 휴식처이다. 이러한 정원의 잠재적인 치유 능력은 병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치유정원에서의 식재는 기능적,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본 연구는 치유정원 내 식재 설계가 '치유'의 공간 및 치유능력 측면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치유정원의 보완요법 가운데 색채요법과 향기요법을 중심으로 개선된 식재설계 기법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색채요법과 향기요법의 특징과 이에 따른 치유 기능, 적용 기법, 그에 알맞은 식재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고, 또한 치유정원 사례를 통한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시각적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색채요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색채별 시각 및 인체의 생리적 메카니즘과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식물종 및 식재설계기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후각적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향기요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향기별 후각 및 인체의 생리적 메카니즘과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식물 종 및 식재설계기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사례와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치유정원의 식재설계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원예치유공간의 공간 및 식재설계양식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치유정원의 보완요법과 식재설계

식물은 공간을 구성하며, 식물이 갖는 색, 향기, 소리, 촉각 등을 통해 기억력 강화, 의사소통 증진 등의 효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행동 기회도 제공한다. 시각은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지배적인 감각으로, 식재는 시각을 이끌고, 이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거나, 특별하거나, 기억을 일깨우는 등 다양한 자극을 제공한다. 색채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는데, 이러한 에너지는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회복하고, 환자의 내면을 자극하는데 도움을 주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 색채는 감정, 물리적 행동에 영향을 끼쳐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효과적이며, 색채마다 에너지 흡수량을 가져 색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후각을 자극하는 식재의 향기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한다. 향기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심리적 변화를 주게 한다. 향기요법은 심리작용과 향 분자 상호작용이 결합하여 효과를 내고, 보완요법 중 가장 널리 실시되고 있다. 향기요법은 주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는데, 향은 분자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이 지닌 향을 가까이 함으로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치료법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2. 문헌고찰 및 현장적용 사례 검토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원예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고, 치유정원을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통합적인 정보들은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정원의 개념을 적용한 병원 옥외 공간 조경설계의 경우, 치유정원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구성하였지만, 식재 설계 부분을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색채의 심리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꽃과 단풍이 아름답다', '개화기간', '다양한 초화류와 허브류' 등 시각적 계절감과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각적 안정감만을 추구했다. 또한, '향이 강함', '질은 약초향이 나는' 등 이용자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식재보다는, 단순 '약초'를 식재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원예 치료적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예치료정원은 치유의 기능으로써 식재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유정원 관리의 대개 전문 관리인이 아닌, 복지사가 맡으며, 대부분의 복지사들은 정원에서의 독성식물도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재의 기능과 효과를 분류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양서적을 참고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식재 설계시 주로 사용되는 식재를 써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 맞는 우리나라만의 치유정원 설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3. 현장적용 사례분석 및 제안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원예치유공간을 분석한 결과, 치유 기능의 식재 설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일차적으로 색채 및 향기 등 보완요법과 관련된 식물종의 선정이 매우 미흡하였고, 오감을 통한 접촉이나 활동공간 환경 조성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재활치료로 활동이 장려되는 공간에는 물리적·정신적 에너지를 돕고, 활력을 높이는 빨간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는데, 녹색과 빨강은 보색대비 효과를 이뤄 두드러진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파랑의 보색인 주황색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좋아, 파랑과 보색대비를 이뤄 설계된다면 아이들의 치유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벤치에 앉아 식물을 만지는 아동

환자들에게는 향기요법과 함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가 좋은데, 향우울에 좋은 라벤더와 근심, 긴장,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제라늄을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결론

치유정원은 단지,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을 구성하는 식재설계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식재는 단순한 요소가 아닌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치유정원은 원예치료 활동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정원을 즐기는 것 자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힐링이 되어야 한다. 색채요법, 향기요법에 따른 기능과 그에 따른 식재 설계 기법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치유정원 설계 시 보완요법의 활용과 식재의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김희성(2004) 노인복지시설의 원예치료적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민병욱(2013) 치유경관의 개념을 적용한 병원 옥외공간 조경설계 -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1(1): 82-92.
3. 이보람(2012) 장애 아동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석사학위논문.
4. Marcus, Clare Cooper and Naomi A. Sachs(2014) Therapeutic Landscapes.
5. Rawlings, Romy(2003) 정원과 건강. 시그마프레스(주).